

‘성보문화재 종합병원’ 건립 첫 삽 뜨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24일 위례신도시서 기공식
불교문화재 직접 보수 복원

불교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책임질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다. 조계종은 지난 24일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부지 내에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공식’을 거행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에도 행사장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홍스님, 중앙총회의장 원행스님, 군종교구장 선묵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조석스님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60% 이상이 불교문화재이지만 사실상 이에 대한 관리·보존사업은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수백 년 된 대형불화인 괴불은 정밀조사를 거쳐 보존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처리공간이 없는 현실이다.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고 훼손될 경우 본래 가치를 잃고 원형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보존센터가 완공되면 훼손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성보문화재들을 직접 보수·복원할 수 있는 ‘종합병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사찰 소장 지정·비지정 성보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고 보존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주목된다. 보존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3000㎡ 규모로 지어진다.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의 3분의 2 크기로, 민간 보존처리 시설 가운데 가장 크다. 설립 비용 200억원 가운데 14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기공식을 갖기까지 힘겨운 각계 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당시 신도시종책특보를 맡았던 허은스님과 기획실장 헤일스님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무사히 대지와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교문화유산 전문보존기관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와 복지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배포한 문건을 통해서도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가 “문화의 조화로운 삶과 삶의 지혜가 공존하는 도시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만의 특징이 살아있는 세계적 자랑거리이면서도 크거나 형태적 특성 때문에 관리가 힘든 괴불이 박물관 수장고를 벗어나 상시로 우리 삶을 비추주게 될 것”이라며 “전국 사찰에 산재해있는 괴불을 진단 보존하는데 한정하지 않고 조각, 회화, 전적 등의 사찰문화재까지 보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불교문화유산 전문보존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남=홍다영 기자**



조계종은 지난 24일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1부지 내에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공식을 거행하고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사진 맨 왼쪽부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수암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각스님, 재무부장 유승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조석스님, 중앙총회의장 원행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박영근 문화재청 차장, 군종교구장 선묵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종단 혼란, 대화와 중재로 풀자”

제2차 사부대중공사 결의
‘공동체 청정성 회복’ 위해
방법은 백년대계본부 위임

종단 사부대중이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종단의 혼란과 분열 상황에 대해 불교적이고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지난 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2017년 제2차 사부대중공사’에 참석한 80여 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은 이와 같이 결론을 도출했다. 대화와 중재는 백년대계본부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백년대계본부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어 종단 집행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2차 사부대중공사에서는 사부대중 공동체

의 회복이 주요한 의제로 정해졌다. 사부대중공사 위원들은 “공동체의 청정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 방식은 공동체의 일원답게 책임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지금의 양상이 앞으로도 되풀이된다면 공동체 내에는 패배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불자 및 사부대중의 불신과 배척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참가자들은 현재 한국 불교의 위기를 공동체성의 붕괴로 진단했다. 정운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승가 내부에서 다투어 할 윤리적 문제조차 무작정 폭로하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방식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며 “내용과 방식이 불교답지 못한

비판과 폭로에는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단호하게 엄중하게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총회의원 생행스님은 “나라에서도 헌법이 있고, 어느 작은 조직에서도 화적이 존재하는 법”이라면서 “최근 타 종교인들이 불교 내부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적페라고 규정하고 연대하는 것도 종단 구성원들이 중헌중법을 제대로 몰라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국대학교 강사 일중스님은 “스님들이나 또는 스님과 재가불자 사이에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지녀야 하는데, 불순한 마음만 가득 한 것 같다”면서 “이런 무례한 마음을 북돋아주는 노력이 아니라 의지를 중도 개인들 각자가 발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주=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3면
‘명원세계차박물관’ 대성황

5면
가을바람 불 땀 산사음악회



8면
‘조선 3대 불상’은 어디에?

9~11면
불교가 어렵다면 ‘책항기’를 ...



불복장 다비...6개 종목
종단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지원 사전등록 후 ‘국가지정’

불복장, 다비 등 점차 사라지고 있는 불교 무형문화유산 6개가 조계종 지정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유무형 문화재를 통틀어 종단이 직접 종목 지정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정현스님, 총무원 문화부장)는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무형문화유산 6개 종목의 종단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종목은 불복장 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제, 해인사 단오날 소금문기, 불교지화, 가사 등이다. 성보보존위는 이날 6개 종목에 대해 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의 소산으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에 따라 종단 지정에 결의하고 체계적 보존과 전승,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의 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복장에 여러 물목을 넣는 불복장 의식은 고려시대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100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다. <조선경>에 근거해 설명되고 있으며 설단, 장엄, 작법, 물목 제작 등 전승자들에 의해 꾸준히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사찰 전체의 결계를 시작으로 의식이 점차 풀어지는 형식을 띠고 있으며 물목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가사’는 수행자들의 의복을 통해 1700년 불교 역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간 가사불사를 통해 전승자를 자연스레 육성해왔으나 가사원 설립 등으로 가사와 그 제작 과정을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사라졌다. 성보보존위는 이밖에도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간소화되고 있는 불교식 장례문화 다비, 구룡지와 소금단지를 기둥 위로 올리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통도사 단오용왕제, 독장적 의례를 띄고 있는 해인사 소금 문기, 예술성과 신앙심이 함께 스며있는 꽃, 불교 지화 등을 종목 지정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성보보존위는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불교 전통이 왜곡되거나 사라져가는 실정”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보존과 전승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고 지정 의미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 kylee@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 (계좌번호 20170426)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www.1027beopnan.kr

제1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2017.7.17월 - 2017.9.1금

1980년 10월 27일 일어난 10·27법난의 진실을 알리고, 문예작품을 통해 10·27법난피해에 대한 치유와 종교적 평화정신의 고취를 널리 확산하고자 제1회 10·27법난에 관한 문예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공모내용
· 시 : 2편이상(편당 분량 제한 없음)
· 산문 : A4, 4장 이상 (종류: 수필, 기행문, 콩트, 주장문 등)
· 만화 : 1편(A4, 4컷 또는 8컷)
○응모기간 : ~ 9.1(금)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공모진 참고목록
△MBC 10·27법난 30주년 특집 다큐 ‘진실과 화해의 길을 찾아’ (2010년 10월27일 방영)
△10·27법난 자료집(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위원회)
△10·27법난의 진실(유응우 저, 화남출판사)
△10·27법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1027beopnan.kr

시상 : 총 24명 이내 선정, 상금 총 2700만원 상당

구분	시상수	부상
대상	3편(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3편(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6편(부문별 각 2편)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12편(부문별 각 4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접수방법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9)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우편(방문)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
· 우편·방문 접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5층 1027법난 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주의사항
- 홈페이지 접수 시 시·산문은 한글파일, 만화는 이미지 파일 첨부할 것
- 기존에 출품되지 않은 신작이어야 하며 순수한 창작물에 한함
- 인정사항을 하위로 기재하거나, 음모작품이 순수한 창작물이 아닌 모방, 표절, 대리 작성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서 제외되며 수상 시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자의 원고 및 저작권 등 제반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참가비 없음 - 만화의 경우 원본 접수

1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1주관 | 총무원 사회부·불교신문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